



베를린과 세계의 풍경을 포착하는 예술가 부부

# 니나와 토어스텐은 항상 여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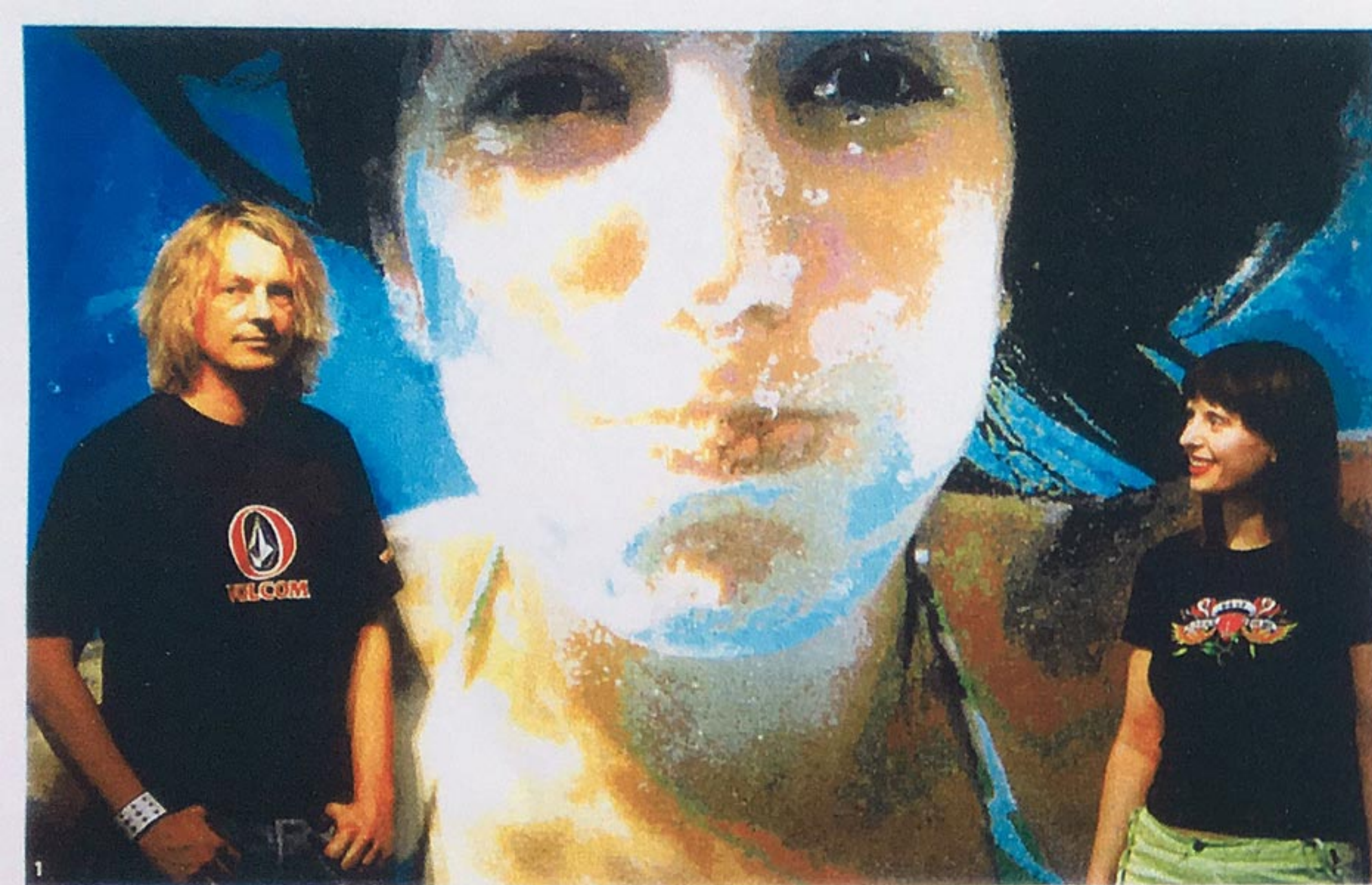
"사진은 삶의 한 부분, 덩어리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해요.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개개의 인간과 문화, 도시 등의 변화와 성장을 표현하는 독일의 신 초현실주의 작가 뢰머부부가 한국을 찾았다. editor 최은경 photograph 박정우 자료제공 갤러리 현대

아시아 최초!

뢰머+뢰머 센스 오브 라이프린

전시 기간 6월 20일~7월 8일

장소 시간동 갤러리 현대



이런저런 궁금증이 절로 생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여름의 더위를 잊고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첨병거리며 뛰어노는 이 그림의 모티프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사진 한 장면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기록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림이기도 하다. 틀림없는 유화이며, 단순한 기록이나 문서가 아닌, '프린첸바트'라는 공원의 야외 수영장에서 한여름을 즐기는 군중들의 망중한을 캔버스 위에 색채로 표현한 평면 예술이다. 그런데 색채는 마치 컴퓨터에 띄운 사진처럼 바래고 얼룩져 있다. 표면의 거칠게 구성된 망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엄격한 관람객이라면 이 그림이 잘못된, 혹은 미완성된 그림이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도시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우리 부부에게 베를린이라는 공간은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죠. 이번 전시작품 중 (프린첸바트에서의 조우)는 단순한 공원의 풍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독일인, 터키인, 아시아인 등 무척 다양합니다. 수많은 인종이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대도시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오아시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를린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로 알려진 로머. 그녀의 이름은 니니(29세)로 러시아인이고, 그의 이름은 토어스텐(39세)으로 독일인인데 뒤셀도르프 미술대학교에서 펠크(ARPenck, 1939년 독일 드레스덴 출신의 독일 신표현주의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함께 독일 현대미술의 기장으로 불린다)의 제자로 수학하며 만났고, 1998년부터 함께 활동해오고 있다. 이 부부는 디지털 사진이 기초가 되는, 항상 사실적인 장면들을 그린다. 독일-터키식 스낵바, 비스트로, 카페, 키스를 하는 여자와 연인들 등 거리의 인상들과 카페와 비스트로에서 바라본 장면들. 사진 속에서는 현실적이었던 그 장면들을 캔버스 위로 옮기면서 초현실적인 것으로 이끈다. 예술가 부부 니나와 토어스텐은 항상 여행 중이다. 배낭에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들이 그들 작품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캔버스 위에 가득 찬 작은 픽셀들은 이미 지난 간 컴퓨터 작업을 연상시킨다. 미완성된 그림처럼 유쾌이 허미해진 그림과 사진 위에 부분적으로 점을 찍어 그리는 방식은 다소 비일관적이고 맹랑할리하다. 이것이 로머+리머의 기술이다. "사진은 삶의 한 부분. 덩어리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해요. 무심코 스치 지나가



는 일상 속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요하네스 안 베르메르(Jan Vermeer van Delft, 1632-1675 네덜란드 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진의 예쁜 면을 보면서 그 장면이 현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 작품은 단순한 포착이나 기록이 아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우리만의 작품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캔버스에 요점이 생기는 듯 터치를 주고 있죠."

부부는 여행 중 한국에 오기 전에도 두바이에서 여행을 하고 왔다. "두바이는 가는 곳마다 남성들이 대부분인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여행할 때 우선 날씨를 정한 후 추운쪽으로 어디론가 날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편입니다."

모스크바에 갈 때는 나나의 가족이 있었고 이번 두바이 여행도 친구가 있어서 가게 되었다. "독일의 거리가 건조하다면, 한국은 매우 비비드하고 에너지틱해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확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공장소나 교각에 설치한 조형도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등 원색을 사용한 것이 매우 이색적입니다." 토어스텐은 베를린의 그래픽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렌트한 휴대용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이란, 예멘, 중국처럼 정치적 종교적 이슈가 있는 사회를 여행하면서 개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확인해보고 싶다. 다시 그려진 스냅 사진들, 인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일상은 동시에 승화된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로머 & 리머는 작품으로 그것을 표현하길 원한다. 삶은 높고 돌며 영리히 계속된다.

1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펠크 고프만스를 하면서 만나 지금까지 9년째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왼쪽의 시마 2007 Oil on canvas, 150 x 200 cm. 2 비토 (비토 앞에서) 2007 Oil on canvas, 100 x 130 cm. 3 비토의 공물(아닌 두바이의 대학 교정) 4 비토의 연애(시마) 5 프린첸바트에서의 조우 2007 Oil on canvas, 200 x 300 cm. 6 월드컵 기간 중에 베를린에서 찍은 사진 2007 Oil on canvas, 100 x 130 cm. 7 여행 중에 찍은 대도시의 거리 모습. 8 니니와 토어스텐은 한 사람의 제기(제기)를 한다. 기록할 때, 부딪힐 때, 심지어는 한 걸음도 놓치지 않게 한다. 베를린의 스텝(디자이너)